



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 청년기업 금융지원 맞손

기술보증기금은 하나은행과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청년기업 도약을 위한 와이-브릿지(Y-BRIDGE)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권형택 기보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LIG, 월드비전에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전달

LIG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월드비전에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 생계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용준 LIG 대표이사(오른쪽)와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후원금 전달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IG D&A



LG화학, 사업장 인근 아동에 신학기 선물 전해

LG화학은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기부Week’를 통해 사업장 인근 아동 113명에게 신학기 선물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아동들은 책가방과 문구세트 등 필요한 물품을 직접 신청했다. 임직원들은 아이들이 전한 사연과 신청 목록을 확인한 뒤 아동들이 희망한 선물을 준비했다. /LG화학

네이버, ‘여행 커넥트’ 서비스

네이버가 크리에이터 제휴 전문 플랫폼 ‘브랜드 커넥트’의 어필리에이트 영역을 쇼핑에서 여행으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네이버 여행과 연계한 어필리에이트 서비스 ‘여행 커넥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여행 커넥트는 네이버 여행이 제휴사로 참여해 네이버 여행 내 상품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크리에이터는 여행사별 별도 제휴 절차 없이 여러 여행사의 국내외 패키지과 가이드투어 상품을 확인하고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인사 ◆아주경제 △북경지사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국제경제팀 차장 배인선
◆폴리뉴스 △산업정책국장 최한성

부음 ▲이강총씨 별세, 김점덕씨 남편상, 이기재(서울 양천구청장)·창재·남순·남숙·명애·명숙씨 부친상, 박민숙·김소윤씨 시부상 = 24일, 이대목동 병원장례식장 특실1,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1666-5000.

▲박춘규씨 별세, 이옥호씨 남편상, 박종훈(KG스틸 GM)·박종미·박종혁(기업은행 대리)씨 부친상, 이현택(전 조선일보 기자)씨 장인상 = 24일 오전 7시,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070-7816-0239.

신동빈 회장 아이디어, 클래식 공연으로… 4500명 한자리

〈롯데〉

롯데 ‘서머 클래식 콘서트’

‘한여름 밤의 도심 속 클래식’ 주제 롯데월드타워·몰 복합문화공간 활용

롯데는 지난 2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2026 롯데 서머 클래식 콘서트(LOTTE Summer Classic Concert)’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료로 열린 이번 공연에는 시민 4500여 명이 참석했다.

‘롯데가 초대하는 한여름 밤의 도심 속 클래식’을 주제로 열린 공연은 정통 클래식부터 영화·애니메이션 OST까지 다양한 곡으로 구성됐다. 지휘자 정한결과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으며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테너 존노,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는 23일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2026 롯데 서머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했다. 무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 4500여 명이 참석해 도심 속 야경과 어우러진 클래식 공연을 즐겼다. /롯데지주

제안으로 마련됐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몰을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행사를 확대해 왔다.

롯데는 계절별로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참여형 문화·스포츠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봄철 시즌에는 ‘스프링 인 잠실’, 겨울에는 빛 축제인 ‘롯데 루미나리에’를 열고 있으며 ‘스카이런’과 ‘아쿠아슬론’ 등 스포츠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서머 클래식 콘서트’는 향후 여름철 정례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의 누적 방문객은 올해 2월 5억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방문객은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에 힘입어 600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A/S 강화

전문 엔지니어 육성·AI 기반 진단

삼성전자서비스가 전문 엔지니어 육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진단을 앞세워 에어컨 애프터서비스(A/S)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기술자격평가와 AI 원격진단, 실외기 작업 안전관리 등 에어컨 A/S 전반의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엔지니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등 9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연 2회 ‘기술자격평가’를 실시한다. 제품군별로 1~3급 자격을 부여하고 9개 제품군 자격을 모두 획득한 엔지니어에게는 최고 등급인 ‘Technical Master(TM)’ 자격을 준다. 1986년 도입한 ‘서비스 기술경진대회’도 40년째 이어지며 고장 진단과 수리 역량을 점검하고 있다.

에어컨 점검에는 AI 기술도 활용한다. 가전 제품 원격진단(HRM)을 통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제품 상태를 분석하고 상담사가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스마트싱스 앱에서는 냉매량과 모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독케어 고객에게는 냉매 부족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알려주는 ‘AI 사전케어 알림’도 제공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A/S 엔지니어팀이 아파트 에어컨 점검 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실외기 작업 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정보를 활용해 건물별로 1인 작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분류하고 서비스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방문 인원을 지정한다. 작업 전에는 ‘안전승인센터’를 통해 설치 환경과 보호구 착용, 화재·누전 예방 조치 등을 확인한 뒤 작업 여부를 결정한다.

서비스 범위는 도서 지역까지 이어진다. 울릉도에 상설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백령도·덕적도·흑산도·비금도 등에는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제품을 점검·수리한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남해안 인근 섬 지역에서 약 5000건의 출장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한컴그룹, ‘제2회 한컴문학상’ 후원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한컴그룹이 총 상금 6000만원 규모의 문학상을 연다.

한컴그룹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2026 제2회 한컴문학상’을 후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컴문학상은 한컴문학상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시문학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어연구회가 1926년 가가날(현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 진행하며 지난해 보다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미래 문학 인재

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고등부 특별 공모를 신설됐다. 응모 대상도 대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총 상금은 6000만원이며, 일반·대학생부의 경우 통합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3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준다. 전 부문 당선작은 한컴문학상 수상집에 정식 출간된다.

접수는 내달 30일까지다. 심사 결과는 10월 9일 한글날에 한컴문학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중기사랑나눔재단, 폭우 피해복구 팔 건어

3000만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경남 폭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900mm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를 비롯해 주택·도로 침수, 산사태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구호 물품은 거제시에 2000만원, 통영시에 1000만원 상당의 생수, 간편식



등 생활용품 및 필요 물품을 각 지역별 이재민 대피소에 전달했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이사장(사진)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중소기업계의 작은 정성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 ‘브런치 공모전’ 작품 모집

심사체계·수상작 규모 등 전면 개편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는 ‘제14회 브런치 공모전’을 24일 시작하고 오는 10월 18일까지 8주간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브런치는 이번 공모전부터 기존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의 명칭을 ‘브런치 공모전’으로 변경한다.

출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공모전과 수상작 자체의 가치를 높이고, 브런치만의 수상작 목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브런치가 주관하

는 외부 전문가 독립 심사 체제로 전환한다.

수상작도 대폭 줄인다. 매년 10편을 대상으로 선정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올해는 소설, 에세이·시, 종합 부문에서 각각 대상 1편을 선정하고 신인 작가상 1편을 추가해 총 4편만 뽑는다. 출판사와 작가를 연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심사에 참여한 제휴 출판사와 작가가 일대일로 연결돼 출간 계약을 맺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브런치가 수상작뿐 아니라 부문별 최종 후보작까지 여러 제휴 출판사에 소개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애경산업, ‘에너지 절약 실천 주간’ 운영

탄소감축 문화 확산 중점

애경산업이 임직원들과 함께 업무와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 10~14일 5일간 사내에서 ‘에너지 절약실천 주간’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탄소감축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심시간 동안 PC 전원을 종료하는 등 불필요한 전력 사

용을 줄였다.

애경산업은 앞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참여 가능한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